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담당
발 신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010-7244-5116/ 02-725-4777
sonjabgo47@gmail.com 참여연대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제 목 [토론회 보도자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날 짜 2017. 11. 23.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대안마련 나서

11월28일(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개최

국가와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입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본 토론회는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쟁의와 집회·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 말하는 ‘괴롭히기 소송’은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 쟁의에 참여한 국민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관 측은 소송을 통해 ‘집회를 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괴롭히기 소송’으로 명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차, 세월호, 밀양, 강정, 민중총궐기 등에 참여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에게 국가와 기업이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소송을 남용한 사례가 계속되어 왔다. 각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 단체, 대리인들은 올 초 ‘국가손배대응모임’을 구성해 소송현황과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집회·시위와 쟁의 참여로 국가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8건, 청구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기업으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60건, 청구금액 금액은 약1,80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사자 개인과 관련 단체에 부과되며, 소송에 따른 국민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가 손해배상가압류를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에도 ILO,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의견 등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 후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유력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

다.

본 토론회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법무부가 한 데 모여 각각의 입장과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최와 주관에 참여한 단체들은 본 토론회를 통해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입법적 해결과 입법 전이라도 별도의 사법적, 행정적 해결을 시급하게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실태”를 주제로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과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발제한다. 2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송상교 변호사(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서선영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석우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지금까지 제기된 각 대안들을 분석한다. 3부에서는 민법 전문가인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헌법 전문가인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민사회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법무부에서 송길대 국가송무과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각계 입장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맡았다.

토론회는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문의 손잡고 sonjabgo47@gmail.com / 참여연대 pil@pspd.org)

*첨부 토론회 웹자보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낚발, 어떻게 할 것인가

2017년 11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간담회실

사회 | 이상희 변호사

제1부 괴롭히기 소송의 실태

- 발제1 괴롭히기 소송의 현황과 인권침해의 중대성
_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
- 발제2 괴롭히기 소송 피해 사례 발표
_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제2부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1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 용역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_ 송상교 변호사, 민변공약인권변론센터소장
- 발제2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점
_ 서선영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 발제3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국가/기업의 손배, 가압류 제한 방안
_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 발제4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풀 것인가
_ 윤지영 변호사, 공약인권법재단 공감

3부 종합토론

-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송길대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주최: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의원실

주관: 4월16일야속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약인권법재단 공감, 공약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 충남지부 /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